

지역 소식통

정읍시,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면접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023년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 평가를 진행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해 줌과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돕고 고령화된 농업인력구조를 개선코자 마련된 사업이다.

면접은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피면접자 88명(전국형 70명, 전북형 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81명(전국형 75, 전북형 6)이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면접 심사 여부에 따라 선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4월 중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면접 심사위원은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전국 4H연합회 현장 벤치마킹 각광

고창군에 전국 4H연합회 회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우수 신기술을 홍보하고, 식량과 농특산품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일실군 4H연합회 30여명의 회원들이 고창을 찾아 상하농업과 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 등을 견학했다. 앞서 2월말에는 충청북도 4H연합회 회원 40여명이 고창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이따른 농업인단체의 방문으로 주요 식당가와 카페 등지가 붐비고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분위기 띄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고창군 4H연합회(회장 이상환)와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홍보활동이 주효했다.

고창군 4H연합회 이상환회장은 "각 지역의 미래 농업을 이끌갈 회원들의 고창방문을 시작으로, 학습단체회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빈집 164동 정비

올해 4억3000만원 투입 최대 350만원 철거비 지원...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 기대

정읍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 빈집은 미관 저해를 비롯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4억3천만 원을 확보하고 주거용 빈집 140동과 비주거용 빈집 24동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4억3천만



원을 확보하고 주거용 빈집 140동과 비주거용 빈집 24동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4억3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건물 소유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건물의 위치·구조·노후 정도·환경 저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후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나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재희 건축과장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마음껏 즐기고 휴식할 공원"

고창군 관문 공원, '고창나들목공원'으로 최종 확정

고창군 초암에 물놀이장과 등을 갖춘 명품 공원의 이름이 '고창나들목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읍 초암의 공원(석교리 산)의 이름이 군민선호도 조사와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고창나들목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나들목'은 나가고 들고 하는 길목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단어다. 고창나들목공원은 읍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해 창의성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나들목공원은 총 13만4,450㎡ 면적에 테마숲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도심이 시작되는 관문에 기존공원(생활체육테마공원, 새마을공원)과 연

계해 군민에게 다양한 복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공원 내 유희공간을 재정비한 물놀이장 개장이 예정돼 있다. 무더운 여름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물놀이장 주변엔 공원 및 체육시설(축구장, 인공암벽장 등이 만들어져 고창군 대표 여가·휴식·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고창군청 박진상 산림공원과장 "고창나들목공원을 고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고창군민뿐 아니라 관광객 누구나 마음껏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제1기 군민감사관 위촉

부안군은 지난 17일 공정하고 투명 한 부안군정 실현을 위해 제1기 군민감사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감사관 위촉은 군민참여를 통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방감사를 실현하는 한편, 군민 불만·불안 사항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해 열린 감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위촉된 제1기 군민감사관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단체 활동가 등 부안군민 7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각종 감사 참여와 자문의 기능을 하게 된다.

군민감사관은 위촉기간 동안 생활현장의 위법·부당사항 및 각종 불만사



항 제보, 각종 감사시 전문분야 지문, 군정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건의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감사관은 군민의 대리인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3년도 대기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본격 추진

부안군, 대기환경 개선 위해

부안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대기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여 약 1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 대기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며 대기 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4·5종 사업장도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환경전문공시업체를 직접 선정해 3월 20일 ~ 4월 14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

안군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및 환경과 환경관리팀(☎ 063-580-4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보다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마음 치유 꽃 트럭 운영

이학수 시장과 정읍시청 직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방역 지원에 나섰다.

이 시장과 직원들은 지난 15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 치유 플라워 트럭'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마음 치유 플라워 트럭'은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프리자아 꽃다발과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꽃 소식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내 화훼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실내 공간에 꽃이나 반려 식물을 두면 실내 분위기 개선과 공기정화 효과는 물론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학수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이날 학생들에게 꽃다발을 나누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로 외로움을 느꼈던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 정서적·심리적으로 위축된 학생



들을 위로하고, 활기찬 일상으로의 회복을 응원했다.

이학수 시장은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생명의 소중함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인정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연구특구 기관들 지역발전 집중 논의

정읍시와 신정동 소재 연구특구 R&D 혁신 기관들이 지역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7일 김형우 부시장을 좌장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내 국제협력관 세미나실에서 '지역발전 전략 브레인스토밍'을 열었다.

'지역발전 전략 브레인스토밍'은 정읍시와 지역 내 연구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도출과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목표로 아이디어를 제시해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3대 국책연구소인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안전성평가연구소를 비롯해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원,

농축산물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 전북대학교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시장 핵심사업과 현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진이 참여해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의 협력 방안과 아이디어 등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지역 현안과 연계한 R&D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연구기관은 시의 국가예산사업 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한 선행연구에 나서 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